

EUNSEOK CHURCH MATHETES

그리움 하나가

신윤식

수많은 칼들이
물에 꽃힌 채
붉은 피 흘리며
홀로 걷는 한 사람

침묵의 길
걸음걸음에
눈물 맞추면
저 깊은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소용돌

그래서 그렇게
제 영혼 부서뜨리는
그 길로 기를 쓰며
가는 것일까

문득
깊음의 속에는
눈물이 맺히고
비로소 그리움 하나가
하늘을 보게 한다.

제24권

36

2016.9.4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십자가로 가까이

고전 1:18-20

설교 / 노요한 목사

1) 나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비율은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빌3:18)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경멸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입에 담지도 못했지요. 만일 십자가를 보게 되면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꺼림직 했다. 그토록 십자가는 이교도의 상징이고 우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척 혐오스럽게 대한 겁니다.

저 같은 자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절대로 복음을 알아먹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손을 비틀어서라도... 끌어내시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가장 처량하고 한심한 것 같은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 십자가가 뭐예요. 거기에 못 박혀 비참하게 그리고 저항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죽어주는 것이 어찌 승리입니까? 어찌 이것이 능력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강한 자는 절대 하나님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지지리 못한 자들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복음인줄 믿습니다. 이단 속에 미끼로 던져 버린 거죠. 이처럼 많은 도구를 사용하시어 택한 자라면 그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질병, 사업실패, 고난, 낭패, 좌절, 이단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리지를 뿔아 바랄까요? 가만 두어라. (마16:28) 가리지 같은 이단도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단이게 그를 치도록 허락했잖아요. 자식이 망하는 일로, 육신의 병으로 친구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혼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즉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회심 이예요. 올고볼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필요하면 사단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병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업이 망하는 일로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무조건 병 낫게 해 달라고 사업 잘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분! 기도 응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 알고 보면 이런 말보다 더 무식한 말이 없는 거죠. 응답에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나는 아무 문제없이 언제나 반사행동해야 하는 나. 탈육에 사로잡힌 자기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이런 것으로 이런 신앙의 자세론 감히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지요. (마16:24) 예수가 진 것으로 뭐가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 그 사랑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쓴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을 모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은 존귀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멸시 받으며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벧전4:13) 그러니 이 세상에서 호의

호식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평탄하게 지낸다. 어느 면에선 다시 못을 귀한 기회를 허송세월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때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고난과 문제들을 무조건 없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지초할 필요는 없지만 अच्छ 성도에겐 고난은 필수코스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그 코스가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됩니까? 흑인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생명이 창조됩니다. 창조의 매커니즘 하나님 창조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잘만 했으면 예수님이 안 와도 되었고 십자가도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인간이 범죄 하여 십자가가 팔고다에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애당초 십자가를 거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으로 십자가는 창세전에 이미 세워진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에도 없었던 십자가가 같보리 언약에 세워진 거라면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서둘러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진 거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병고치고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갑자기 세워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어둠 저편에 빛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둠 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거 있죠. 육신이란 사망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홀로 지을 받은 사람 아담은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창2:17) 그거 따먹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를 인간은 해결한 길이 전무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일라는 겁니다. 악과

통해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경험만큼 큰 스승은 없다고 하잖아요. 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경험케 하시며 빛이 아닌 어둠을 먼저 경험케 하십니까?

2)여기에 십자가의 팔연성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로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온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팔연적으로 와야 할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먼저 죄를 알아야 했듯이 그것은 하나님만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 영광이 되기 위한 팔연적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씌어질 육신의 한계 안에서 영생을 나타내시며 죄 가운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율법 아래서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죽어서 사는 원리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죄인 하나가 나하곤 상관없는 거로구나 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물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육망의 노예가 되어 태어나서 먼저 울죠. 나란 자기존중 중명이예요. 또한 난 배가 고프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물고 빨고 하면서 쾌락의 달콤함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막 울고 보채면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지네. 요런식 신앙이 뭘 신이이죠? 막 땡깡기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데 이거잖아요?

유아기식 기도(배워야 해요) 땡깡을 부리고 억지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네. 요걸 알기까지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 받았) 요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때마다 응답 받는다는 얘기는 나 아직 어린애 신앙이예요. 그러는 겁니다. 너무 내 기도응답, 내 관심사에 집착하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에 의해 버립니다. 내가 분명 이렇게 기도 했는데 응답은 전혀 다른데서 생각지 않게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 갑자기 기도 안하면 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까요? 더 나아가서 뭔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더 겁나는 거 있죠~ 문

제를 주셨을 땐 그 문제 안에서 답을 풀라는 거지 그 문제를 얹어 주세요? 하는 건 시험 거부하는 격이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이라고 내 맘 안 돌으면 울아버린다. 업프를 놓고 육박지르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부터 배워요. 죄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죄의 맛을 먼저 터득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날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아기 보셨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놀랄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무서운 죄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피와 살처럼 붙어 있어 결코 죽는 순간까지 떼어낼 수 없는 거란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롬7:11)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천사처럼 성인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제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크게 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하나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나란 존재로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확신 하는데, 확신은커녕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믿어서 천국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럼 그것도 큰일인데요, (확신이란 건 ~사상, 신념, 종교 속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 믿을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심도 나타나고, 염려와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걸 약속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의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지,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맘에 들어서 대견함에 보상차원으로 주는 것도 어떤 공은 확신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은혜를 알고 창조주의 의존적 존재임을 알아먹는 철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지 선악과 입에 물고 태어나게 했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불순종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를 경험하지 않고는 의를 알 수 없고요, 죄인 됨을 자각하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대속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한적 존재로 육신을 입혀 시공 안에 역사 안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한계 안에서 죄라는 것을 실감하고 인간은 그 죄의 집요함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죄인의 자각이. 바로 인간 처음자리 인식이잖아요? '너 자량이 같은 아꼴애, 티끌 몸을 스스로 자각 하라고 인간의 한계를 폭로해 내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잡히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티끌인데, 동 덩어리에 불과한데. 네가 잘 먹고 잘 되고 부러울 것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되면 그 하늘나라의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결핍이란 것을 느껴보지 못한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 같아 겁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걸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빈곤하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느냐? 인간의 결핍을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태어나자마자 육신의 정욕에 굴복 당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육신에 자게 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죠. 이 말이 '여러분이 육신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돌리지요. 그러나 그 반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불순종하지 않고 따라갈 자신 있어요. 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한계를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려는 극기 훈련 같은 것이 신앙의 대단한 경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거의 99% 고급한 성화주의 황홀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의 함정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응답 받고 예언하게 하고 능력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인간이 무력하다. 자길 부정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연중에 실종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부인만 하다 갈 겁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리 너무나 솔깃하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해, 시명 감당해야 해, 그러니 능력 받고 은사 체험해야 해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마귀의 속삭임은 언제나 그렇게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구로 쓰세요. 나의 육의 연약을 통하여 넌 안 되는 부인해야 할 존재로 인정하도록 하는데 쓰는 겁니다. 능력이나 줘서 날 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일에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한계를 절감하게 하도록 하고 '선악과 따 먹지마.(창2:17)'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 해.(눅 10:2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켜낼 거라는 기대로 주셨다고 보면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네 주제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지켜서

뭔가 된 줄 알아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받으면 내가 추구드는데 거예요. 배주 저러지듯이 성령의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했잖아요. 능력 받고 으쌰~ 으쌰가 어떨..내 속을 들리게 되니 고개를 못 들었는데, 내 어둔 속을 밝히 비추내어나의 무력함을 폭로해내는 것이 성령의 불 성령의 관능입니다. 나를 죽여 내는 관능이지 날 살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령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지 산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안에서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죽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 죽었음을 아는 자에서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네.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저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시간 속에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시공을 초월하여 골고다에 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전이나 후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우리로 세상의 자랑에 탐닉되게 하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하늘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뭐가 잘못 되 거예요.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죠.

반대편에 있는 것은 서로 통한다 했잖아요. 아닌 것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엇비슷하면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법입니다. 진리는 비슷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 반대 편에 있단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게 인도받기 위하여 죄악 속에 내 던져지고 세상이 버림바 되고 율법과 저주에 묶이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 진리는 십자가 안에서 성취 되었으니 그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먼저 진리를 주지 않고 율법을 먼저 주시고 죄를 먼저 정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가? 먼저 진리를 주심 아무도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경함께 하시고 거짓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결단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잖아요.(롬 5:20) 죄를 통하여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짓 죄를 많이 지으면 자을수록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를 거저 입혀 주시기 위함이에요. 의는 절대로 인간이 노력으로 쟁취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죄밖에 다른 것을 낼 수 없는 죄 자체거든요. 의는 하나님이 거저 입혀 주셔야 하는 의복 같은 겁니다.(갈3:27) 죄 속에 뒹굴어 본 인간만이 죄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인정하며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가 은혜 베푸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선악과 안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의 섭리는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있는 가운데 새로 짓는 것은 수리나 보수지 창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고로 내 없음과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을 의인으로 지었음에도 죄를 경함께 하시며 세상에 욕을 갖고 보내신 이유는 내가 죽은 자이며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주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리라는 내 존재의 확인이 먼저 되어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이지 원래 예수가 죽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는가? 믿어지는 것 그 사실이 내 삶에 실체화 되는 것 이것이 자기부인이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가 새 창조의 대열에 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표징이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임을 당신이 받아야 할 세례로 말씀 하셨어요.(눅12:49-50)

4) 왜 십자가야야만 하는가?

우린 다 죽어 있는 송장파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만날 수 있냐 이 거죠. 기도로도 만날 수 없는 분, 지식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분, 내 자의로 믿을 수도 없는 예수, 기도로도 안 되고 성경을 파도(원어파자) 안 되고 의지로 믿을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죽어 미망한 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이란 전제가 성립 되어 하는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죄인인 것을 몰라요.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내가 나로 살아 있는 한 내 안에 예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죽지 않고 믿으려하니 예수를 내 밖에 두고 섬김의 도구로 삼는 것을 믿음인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죄를 주문처럼 믿습니다. 라고 외우기라도 하면 감쪽같이 죄가 없어지는 부적처럼 예수 십자가를 그리 생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 주문 외우듯 무조건 예수 피만 외쳐 맙니다. 왜 그런 거죠? 내가 믿으려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건강한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마 9:12) 우리가 손발 다 찢어 들어가지만 고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인데 죽었던 감각이 돌아오게만 하면 고통스러워 팔짱~ 뒤통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통증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문둥 병자 소경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 후에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는 것 아니 새롭게 창조 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만일 진리가 먼저 오고, 선이 먼저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인간이 죄를 모르고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죄와 악을 가르칠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도 느낄 수도 실감나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을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활용했느냐?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 죽인자로 성령이 오셔서 폭로해 내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 맞네요.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만 밝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멀리서 보면 희미합니다. 저거 바라보고 치료 받으라는 건지, 저거 바라보고 섬기라는 건지, 그러나 성령이 오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가요? 우리를 예수 죽인자로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 모두 심판 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전장을 받았습니까? 누가 용서 받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가 끝고다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언약 안에 아담의 십자가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으면 사실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걸 부정해 버리면 십자가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건이요. 그 이들은 공연히 희생된 제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해 내시기 위한 공연한 고난을 예수가 받아버린 결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 우리를 안에서 동정을 살 수 있어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여 내시고 함께 부활에 동참시켜 하늘 영광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정을 받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죄 없는 자를 세상에 역사 속에 던지심은 뭘 하라고 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라고 십자가 은혜를 배우라고 이 세상에 보낸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17:3)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 하

실 때만이 인간은 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요. 부르심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색아질 것)을 쓰고 왔기에 세상 것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법이, 은혜보다는 행위가, 계정도보다는 내 의지 발동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부인 보다는 체면 유지가,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 변화가 앞서게 되어 있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하는 존재가 맞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 말할입니다. 그것이 여겨주심의 은혜인 것이예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동일시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없음으로 자기 존재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자기부인의 신앙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 하는 거죠? 섬겨 어떤 유익과 혜택을 보려는 목적이잖아요. 주체는 언제나 나이고, 하나님은 그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잘되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뿐이죠. 이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가 내 삶속에서 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기 부정이 먼저 고백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행기는 행위가 얼마나 우선적이며 주체님은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자아 확립에 몰입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어떤 자신의 실체가 폭로될 때, 이것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이 가능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얼마다 때마다 역사 속에서 나를 부정하시고 부인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다행

인가를 깨닫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단을 분별하라

요이 1:7-11

설교 / 노요한 목사

저는 이단에서 10여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였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보다는 또 다른 이단에 탐닉 하게 됩니다.

~왜 아단이 무서운지 아세요?

1).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서 한번 그 맛을 보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파 계열에 30년 이상을 매여 있다 풀려났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그 교리만큼은 그 어떤 교단의 가르침보다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몸은 이단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그 이단 교리에 매여 있는 거죠.

~이단이란 곳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제정신을 잃다시피 합니까? 거기엔 뭔가 나름대로 그러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지식인들 인텔리들이 무병비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자존심 힘껏 고취시킵니다.

우리만이 진리라는 자기 아집과 독선이 강합니다. 지부심이 대단해요. 자기들만이 참 종교라는 그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저도 과거 여중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요~ ~이처럼 이단은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3). 이단에서 나왔다 해도 이단교단 소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왔다 해도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단교회를 소풍하며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같은 영, 같은 사상, 같은 교리적 요인이 있으면 사람들은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비슷한 이단에 심취하게 되었던 거죠? 이단 종파를 떠난다 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교파인 역호와의 증인에서 어떻게 탈출했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동안 통일교에 매료됩니다.**

원리강론이란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풀어 놓은 이론이 여중의 성경연구와 흡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 쪽에 끌리게 되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가 죽기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인간들이 잘만 믿었으면, 저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옹립했다면 지상낙원 지상천국을 이룰 수도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문제 해결사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잖

이요, 물론 이 전체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어야 한다.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란 얘기가 남독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뭘 자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여중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도의 노력으로 만날 수 있고 진리를 밝혀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로 보면 믿으라는 이야기는 너무 무기력하고 맹목적인 주장처럼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안 죽어도 될 일을 우리가 예수를 못 알아먹어서 그 예수가 죽은 거다. 어느 면에선 유대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예수는 실패한 거다. 그래서 자람예수가 와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죠? 그때엔 이런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렸던 겁니다.

사실은 전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담의 실패 때문에 그 문제 해결로 예수가 와야 한다는 알미나안적인 이론의 기반은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 먹었으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타락하는 바람에 이 모든 상황이 뒤틀린 거다. 그걸 되돌리기 위한 구원투수 역할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언제나 그 예수와 십자가를 내 밖에 두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해석하는 신화의 오류를 낳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와 난 하나로 연합시키는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부적처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상, 십자가목걸이, 파) 지금도 너희가 믿어야지 안 믿으면 다 망한다. 지옥 간다.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고 하는 지극히 인본적인 주장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알미나즘에서 비롯된 인본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기독교 사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

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잘못된 교리가 낳은 인본주의의 추한 민낯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교리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의가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아담의 핵심교리 사상 속에는 이런 인본주의가 그리고 인간이 구원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교에 잠시 빠지게 됩니다.**

여기는 여중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중의 창시자 뮌셀이 초기 재림교 본파에서 종말론에 심취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재림과 종말에 관련하여 거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 초기 여중의 모든 서적들의 내용은 거의 안식일재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지옥부재, 영혼사멸, 영적재림)

계명지킴을 강조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이 주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성경대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는 거 여중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런 행위구원론이 그때엔 얼마나 신성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중은 거기에 대해 '피를 멀리하라. 는 계명을 확대해석하여 수혈까지 거부하게 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자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안식교에서 나온 것이 여중이요, 여중의 뿌리가 안식교라는 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종말복음(해성교회)에 심취합니다.**

오늘날 말세는 성령시대로 성령의 기쁨을 준비하여 신부 단장해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교리죠. 은혜시대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종말의 시대 신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중의 종말론과 비슷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말세에 환난을 면하고 여호와증인
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중의 시한부 종말론 사상은 1975년 가을에
종말이 오고 큰 환난이 시작되고 여중은 큰 바벨
론으로 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교리 때문에 보
험 적금 만료 시효를 1975년에 맞춰 놓고, 물건
을 사재기 하는가 하면, 수술 받아야 할 사람도
75년만 넘기면 된다고 다 그날까지 일체 보류시
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
론 저도 그 1975년도의 피해자입니다. 시한부 종
말 신앙이 사람들을 얼마나 허황되게 만들어 버
리는지 생생하게 체험했죠.

세 이단적 요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위구원
이 그 핵심이요, 뿌리라는 겁니다. *산악과 떠먹
지 마라* 창세기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법
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의 문제인데요, 하
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이 계명 잘 지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 이런 사실 따위의 주
장에 더 가깝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신성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십
자가를 준비 한 거야. 너희를 법으로 죽여서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가져 하늘 생명으로
살려 내는 당신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방법
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구원이 요원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 그
생명나무의 예수 십자가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
는 계명이었다는 거죠. 이 비밀인 하늘 생명의 신
비를 육적인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의 계
사가 선악파를 먹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단은 왜 자꾸 십자가를 가리려 하는가?

그 영생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기에 간추어
져 있었던 것이구요, 그 속에 생명나무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 살아서 생명
으로 거둘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

수와 함께 죽여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
시려는 것이 십자가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의 연
약 안에 있는 자들만, 그 눈을 열어 선악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보이고, 죽어서 사는 십자가
의 복음이 들려지고, 가져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
진다는 것이 복음의 요지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은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러니 이단은 십자가를 좋아할 이유가 없죠. 어떻
게든 십자가를 가리아야 합니다. 여중 십자가 혐
오합니다.

통일교 십자가에서 예수가 실패했다고 하죠.
전도관은 십자가 표시를 없애 버리고 비둘기 형
상을 교회의 상징을 바꾼 거 아니죠. 비둘기는 성
령을 상징한다고요. 십자가 없는 성령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행위구원론, 고급스런 성
화론, 아주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복음
인척 위장합니다.

구분 기준은? 나의 자존심을 얼마나 세워 주느
냐? 너도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성경연구하
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기도하여
은사 받고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소
원이 성취된다는 뿌리 깊은 사상은 온연중에 된
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기도 못한 탓이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처럼
돌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린 그
속에서 꿰뚫어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 받는 신앙 잘되는 신앙 품 나는 신앙. 신자
들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는 신앙. 그럴듯하죠.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면 그 방향이 결국은 고급
한 성화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히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지론이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신화사상

하나님 같이 된다는 신화사상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같이 되는 그걸 영성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 아니죠. 지방교회나 다락방 안에도 이런 신화사상이 있는 듯 한데요. 이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의 존재부인 나의 한됨이 전제된 연합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어 하늘에 가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불멸의 존재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의 존재이유가 뭐가요?

갈라디아서8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은혜로 시작 했다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다 행위로 마치려 하려느냐? 이런 의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말씀을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전도해야 할까요? 이단의 가라지를 분별해 내야 할까요?

주님은 곡식밭에 지라고 있는 무성한 가라지를 보고 뾰도 모르고 "이걸 뽑아버릴까요?" 했던 종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 하노라" (마13:29) 결국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지라게 두라" (마13:30) 하십니다.

가라지를 통하여... 내가 거짓(가라지)임이 증명 되어 합니다. 내가 마귀 이단임이 증명되어야 해요. 내가 죄인 중 과수 죽은 자 맞네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 안 믿으면 난 생명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을 때 까지 성령 받을 때 까지 아니요~ 우리가 죽을 때 까지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내 그래서 세상은 성도의 무덤입니다.

세상의 육을 벗는 것이 세례요 십자가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까? 성령 받으면 이제 내려 놔도 됩니까? 성도는 이제

십자가 내려놓아도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릴레이 할 때 잡고 뛰는 바통처럼 이제 달리기 끝났으니 이제 내려 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거주장소라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의 실존 자체가 십자가인데 뭘 내려놓고 말고 합니까? 십자가를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 방법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가짜 거짓을 뽑아내야 합니다.

나는 뿔하고 그리스도에 심기어져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나란 객체로서 어떤 십자가의 효력만 갖고 생명이 되는 방법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 새롭게 거듭남이 없이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길이 되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까요. 왜 자꾸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 찾고 구하려고 하나요. 그런 이단의 근성이 뿔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인데요. 이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른복음이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안에 작정된 자들만 죽여서 새로 살려내는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단종교도 문제이지만 내안에 있는 가짜 복음 기복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과 능력의 종교,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고급한 성화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가짜를 보기에 앞서 내안의 가짜를 보라는 겁니다. 가짜를 진리 속에 끌까지 숨겨 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가짜 속에서 참 진리를 분별하라고 세상 끝날 까지 가라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단 종파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알곡들 정신차리게 하려고 말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1.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만 자기 확대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분위기와 그것을 부정하는 옛 사람의 습관에 젖어 은혜와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3. 오늘 설교해 주신 분은 노요한 목사님입니다.



비비추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	7:30
주일학교	1:00



묵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0장
 교 독 문 80(고후4장)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149장
 성경봉독 고전 1:18-20
 설 교 노요한 목사

● 십자가로 가까이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39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6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성희 장로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98장
 기 도 박연희 집사
 찬 송 438장
 성경봉독 요이 1:7-11
 설 교 노요한 목사

● 이단을 분별하라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59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명기룡 집사



창세기 강해 116강